

BÀI TEST BIÊN DỊCH TIỂU THUYẾT TIẾNG HÀN

Yêu cầu:

Dịch đoạn văn dưới đây ra tiếng Việt.

“끝까지 지랄 맞네.”

암병동 6인실 구석 자리.

한 여자가 벌써 다섯 통째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.

군데군데 깨지고 금이 간 스마트폰 구석에는 4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었다.

짧으면 삼 개월, 길면 육 개월, 기적이 일어난다면 십이 개월.

배수로 딱딱 떨어지는 이 숫자는 의사가 말한 그녀의 남은 인생이었다.

원인은 다양했다. 망가진 식습관과 생활패턴, 끔찍한 스트레스와 그걸 달래기 위해 밤마다 혼자 마시던 소주.

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원인이 바로 지금 전화조차 받지 않는 여자의 남편이었다.

간병을 해달라거나 보고 싶다거나,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화한 것도 아니었다.

애초에 그런 걸 기대한 적도 없었고. 그저 네가 갖고 있는 내 돈으로 병원비를 정산해 달라고 연락한 것뿐인데.

남편은 그 메시지마저 깨끗이 무시하고 며칠째 연락조차 달지 않았다.

여자는 보풀이 인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산책하러 가는 척 병원에서 나왔다.

그녀가 혼자 암과 싸우는 동안, 아니. 암세포에게 먹혀들어 가는 동안 열심히 피어난 벚꽃이 머리 위로 하늘하늘 떨어졌다.

봄이었다.

“택시!”

운 좋게도 큰길가에 내려서자마자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.

아마 이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행운이겠지.

여자는 자조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익숙하게 목적지를 설명했다.

“우야노, 마이 아픈가베.”

백미러로 그녀를 훑어 본 택시기사가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말했다.

무심결에 쳐다본 백미러 안에서는 환자복에 낡은 카디건, 폭 눌러쓴 모자로도 감춰지지 않는 민머리를 가진 여자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.

“.....그렇죠, 뭐.”

많이 안 아프다면 그게 더 이상한 꼴이다.

“금방 나을겁니더. 하모, 열 밤 자모 훌훌 털고 인나제. 인자 봄이다 아잉교?”

서울 토박이라면 선뜻 알아듣기 힘들 만큼 심한 사투리였다.

하지만 여자는 그 사투리에서 익숙함을 넘어 그리움마저 느꼈다.

여자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던 아빠와, 아빠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던 여자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이었다.

그때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면..... 나는 행복했을까.

여자는 부질없는 생각에 잠겨 과거를 더듬었다.

열아홉 살.

꿈 많은 소녀는 서울에서도 내로라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.

당연히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자취를 할 생각이었지만,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던 아빠가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.

아내도 없이 혼자 키운 딸을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에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.

“안 된다, 거가 어디라고 니가 가노! 마 부산대나 댕기라!”

“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끼가? 부산대 그래 좋으모 아빠나 가라!”

